

걸림돌 Ⅱ.

섭섭함의 뿌리는 자기연민이고, 자기연민의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다.

1. 큰 아들의 마음

[누가복음 15:25-32]

25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26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 보았다.

27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28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29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30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 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31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32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의 마음의 중심'이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존재적 사랑을 보여주는데, 핵심은 아들의 상태와 관계없는 조건없는 사랑이다. 그 사랑의 대상이 집 나간 탕자였다. 그런데 이 비유는 다른 아들에게도 초점을 맞춘다. 바로 큰 아들이다. 큰 아들의 마음이 불편하다. 이유는 하나이다. 동생을 향한 무조건적 사랑에 비교를 당한 것이다.

(1) 비교

'비교'는 영적인 차원의 이해가 필요하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비교'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는 언제나 상대적 가치이다. 첫번째 비교를 보라. 아담의 비교이다. 아담의 욕망이 사실 하나님과 선악과를 비교하게 했다. 비교를 통한 건주는 것이다. 이 때 절대적 가치는 언제나 공격의 대상이 된다. 유일한 가치는 없다. 하나님 말고 다른 가치를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바로 비교이다.

가인과 아벨 또한 비교의 비극이다. 비교는 죄의 속성이다. 그래서 건강하지 않다. 모든 것이 보여지는 것에 의한 상대적 기준이기 때문에 불안하다. 기준이 없다.

말아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는 상대적 사랑이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상대적 사랑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가 잘 해준 것으로 판단한다. 먹을 것을 남들보다 많이 사주면 아버지가 더 사랑하는 것이고, 적게 사주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이 보여지는 보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철저하게 세상적 마인드이다. 이런 마인드에서 보면, 가난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아버지는 무능하고 아버지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 된다.

아버지의 대답은 분명했다. "아들아 내 것이 모두 네 것이다. 너는 살진 송아지 한 마리와 비교 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다. 보여지는 것을 보지 말고 너를 향한 네 마음의 중심을 보렴"

(2) 섭섭함

결국, 말아들의 마음은 섭섭함이다. 섭섭함의 뿌리는 비교를 통해 바라본 '자기연민'이다. 자기연민과 반대처럼 보이는 자기의는 사실 같은 뿌리이다.

- * 자기연민 : 열등감, 결핍을 느끼는 고아의 마음.
- * 자기 의 : 교만, 과한 자신감.

결국 같은 뿌리이다. '자기'를 알아달라는 것이다. 아무도 자기를 살피거나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이 마음이 '섭섭함'이다. 자기연민도 자기 의도 자기를 알아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섭섭함은 존재적 상실감으로부터 오는 공허함이기 때문에 영적인 차원의 이해가 필요하다.

2. 자기부인

[누가복음 9:23-24]

23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4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할 가장 첫 번째 일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란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자기를 말한다. 결국 그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된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얼마만큼 삶에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가에 달려있다.

- (1) 인정받고자 하는 '자아'를 부인하는 일 -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싶은 마음 (바벨의 사고)
- (2)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자기연민'의 자아를 부인하는 일

자기부인을 삶에서 연습하지 않으면 결국 '섭섭함'이라는 감정에 사로 잡힌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공간을 만들어처럼 만든다.

3. 자기연민의 섭섭함에서 나오는 길

- (1) 이해가 아닌 신뢰를 연습하라.

이해받기를 구하지 마라. 이해는 언제나 삶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로 번진다. 결국 이해의 사고는 '희생자' 하나가 만들어져야 해결이 된다. 그래야 나의 정당성이 옳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가 아니라 신뢰이다. 조건이 없다. 우리를 사랑하신 일에 이유가 없다.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다.

- (2) 사람에게 구하지 마라.

결국 내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물론 믿음의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해답은 아니다. 섭섭함이 있는가? 사람을 보고있기 때문이다.

- (3) 섭섭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마음은 정직하다. 영적인 침체와 섭섭함, 분노와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예배와 기도 생활을 점검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이 없을 때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판이 된다.

- (4)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읽는 연습을 하라.

진짜는 언제나 중심에 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다윗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읽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런데 내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분명히 해야한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의 중심된 마음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5) 실재적 말의 선포가 중요하다.

평상시의 신앙고백이 중요하다. 오늘 나의 신앙고백은 미래의 실재가 된다. 오늘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미래도 하지 못한다. 고민된 말이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단계가 중요하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담을 수 없다. 효력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평상시가 중요하다. 훈련이다. 훈련을 왜 하는가? 위기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을 하라.

(6) 사랑하기만을 결정하고, 사랑하기만을 연습하라.

(7) 광야로 나아가라.

광야에서 홀로 외로이 있는 나를 발견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라.